

LA 6가 다리, 개통하자마자 폐쇄



▲ 스쿠터족들이 점거한 6가 다리. 사진=유튜브(CBS Los Angeles) 캡처

LA 시내에 5억8,800만 달러를 들여 만들어 최근 개통한 다리가 개통 2주 만에 무기한 폐쇄됐다. 교통사고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다.

지난 27일 LA경찰국(LAPD)은 트위터를 통해 불법 활동과 공공 안전 문제 때문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6가 다리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 다리는 지난 10일 개통했으나 뜻하지 않게 LA의 골칫거리가 됐다. 화려하게 지어진 새 다리가 개통되자 쪽족의 불법 도로 훼손, 자동차 충돌 사고, 아치에 오르기, 도로 점거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LA시 당국은 교량 위에 과속 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했고 중앙분리대와 보호 울타리도 만들기로 했지만 각종 불법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나흘 동안 각종 불법 행위로 57건의 교통규칙 위반 딱지를 뺐고 차량 6대를 압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통사고와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결국 다리 통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수백 건의 압수와 교통규칙 위반 딱지, 범법자 체포에도 여전히 불법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양당제 정치 끝내자”... 중도 정당 창당

미국에서 제3지대를 내세운 중도 정당이 창당한다.

지난 28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탈락한 뒤 탈당한 아시아계 앤드루 양과 공화당에 몸담았던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전 뉴저지 주지사를 중심으로 양당 출신 인사들이 '전진당' (Forward Party)을 창당했다.



▲ 앤드루 양(왼쪽)과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오른쪽). 사진=shutterstock/christiewhitman.com

전진당은 양당 구도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대안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알리면서 차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9월 24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공식 창당 행사를 열고 올 가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수십 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양당제를 깰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해 2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을 너무 못해 제3당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62%가 찬성했다.

하지만 양당제가 확립된 뒤 제3의 정당이 자리를 잡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나마 2000년 대선에서 녹색당 후보로 나선 랠프 네이더가 민주당 표를 잠식

해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정치권에 충격을 준 주요한 사례로 꼽힌다.

지금도 미국에는 양당 외에 녹색당, 자유당, 헌법당 등이 있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양당제가 고착화한 미국에서 전진당이 성공을 거두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가뭄·산불·홍수... 미 전역 기상 재해로 몸살

미국이 기상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례 없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미국 최대 저수지인 미드호 수위가 역대 최저치(최대 용량의 27%)로 떨어지자 제2차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상륙정을 비롯해 인간의 유해 등이 드러났다.

미드호는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저수지로, 로스앤젤레스 등 약 2,000만명의 미국인들이 그 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1983년 이후로 물 수요 증가와 지속적인 가뭄이 맞물려 수위는 저수량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많은 기후 변화 전문가들은 서부를 뒤덮고 있는 가뭄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산불은 급속도로 번져 피해



▲ 홍수로 물에 잠긴 켄터키시. 사진=as-ansar.org

가능성이처럼 불어났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은 지난 22일 요세미티 공원 남서쪽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오크 화재'로 지난 29일 현재 진화율은 55%로 19,208에이커가 산불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산불은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20대 산불 중 18건은 2003년 이후 발생했다.

지난 28일은 켄터키주 동부에 2,000~3,000mm의 폭우가 내려 거리와 집 대다수가 잠겼다. 29일 현재 알려진 사망자만 최소 15명으로,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아 주 관계자들은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켄터키주에 재해를 선포했다.

날말퍼즐 정답						
1	삼	계	2	탕	3	통
	발		5	감	언	6
7	이	8	산			9
		전			10	배
		11	수	험	12	생
13	오	전		채		14
	선		16	임	기	응
18	지	원	자			19
					고	자
						질

